

보도 일시	2022.9.26.(월) 11:00 (2022.9.27.(화) 조간)	배포 일시	2022.9.26.(월) 06:00
담당 부서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임필교 (02-2110-1442) 사무관 한지혜 (02-2110-129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노정식 (051-400-4106) 연구관 김영택 (051-400-439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김백수 (051-400-4380) 사무관 신만석 (051-400-4240)

재난방송, 국토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영상 활용

- 국립해양조사원 17개 지역 CCTV 실시간 영상 방송사에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 이하 ‘해양조사원’)은 국민에게 생생한 재난방송을 전달하기 위해 해양조사원이 보유한 17개 지역의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21개)을 20개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및 용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과 동·서·남해안 해무관측소 및 조위관측소*로 총 17개 지역의 21개 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제공된다.

* 조위관측소 : 바닷물의 높이(조위)를 측정하는 국가 해양시설

이어드는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여 태풍 상륙의 주요 관문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재난 상황을 방송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다.

또한, 섬 지역 및 바다·해안가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재난방송에 활용하여 태풍, 해일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생생한 현장 화면을 통해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전달하여 국민들에게 전달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또한, 해양조사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활용함에 따라 재난 현장 취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취재진을 보호하고,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방송사의 재난방송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은 전체 66개 재난방송사업자 중에 사용을 신청한 20개 사업자인 KBS, MBC, JTBC, MBN, TV조선, YTN, 연합뉴스TV, 광주MBC, 여수MBC, 대전MBC, 전주MBC, 강원영동MBC, 제주MBC, KNN, 광주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 G1방송, 제주방송, OBS 경인TV에게 제공된다.

해양조사원은 이번에 제공되지 않는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송출 점검을 완료하고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재난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끝.

【붙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되는 CCTV 영상 목록

□ 해양과학기지(이어도, 웅진소청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p>옥상</p>	<p>옥상</p>
	
<p>접안시설</p>	<p>접안시설</p>
	
<p>북쪽해역</p>	<p>북쪽해역</p>

□ 해무관측소



부산항(북항)



여수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풍도)



포항항



목포항



대산항

□ 조위관측소



진도 조위관측소



인천 조위관측소



여수 조위관측소



군산 조위관측소



모슬포 조위관측소



목호 조위관측소



부산 조위관측소